

에이츠의 마스크 이론을 통해 본 문학관

이 도 경

I

에이츠(W.B. Yeats)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모든 사고의 대상을 —그것이 인생이든, 역사의 흐름이든, 자신의 성격을 위시한 인간의 성격이든 간에— 그 대상 속에 내재하는 서로 상반되는 두 요소의 갈등으로 포착한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은 사고의 대상이 에이츠에게 갈등의 요소를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이츠가 『비전』(*A Vision*)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그의 의식이 ‘갈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나의 선생님들은 의식을 지식이 아닌 갈등과 동일시했으며, 또한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논리를 조화를 향한, 통합된 존재를 지향하는 투쟁으로 대체했다. (*A Vision* 214)

갈등과 갈등을 넘어서는 조화를 향한 투쟁이 에이츠 의식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물에서 갈등을 감지하며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속성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색조 사이의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A Vision* 79)

자신의 사고의 특성상 ‘갈등’을 삶과 만물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파악하는 예이츠는 그의 관념론으로 인해 낭만주의의 전통 속에 서게 되는데, 기실 갈등을 중심으로 의식과 세계를 이해하는 태도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깊은 관심을 보인 비교 (occultism)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블레이크와, 예이츠가 블레이크를 완성한 인물이라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니이체에 힘입은 바 크다.

나의 마음은 소년기이래로 블레이크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세계를 갈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정과 반대의 차이를 알았다. 블레이크는 “대조를 이루는 것들은 실재하며 부정은 반대가 아니고 대조를 이루는 것들은 똑같이 참되다”라고 썼다. (*A Vision* 72)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위의 인용문이 알려주듯 예이츠로 하여금 사물을 갈등구조로 파악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갈등을 이루는 두 항목의 상관관계, 즉 예이츠의 이분법의 성격을 결정짓게 된다. 예이츠는 블레이크와 니이체의 영향으로, 갈등의 두 구성요인 중 하나는 다른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생겨나는 존재가 되는 헤겔의 변증법을 배격하고 두 구성요인이 서로 대조는 이룰지언정 부정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양극성(polarity)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포스터(J. B. Foster Jr)는 그의 비평서 『디오니소스의 후계자 (*Heirs to Dionysus*)』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부정함에 주어지는 역할에 따라 구분되는 두 종류의 이분법이 문제가 되었다. 변증법에서는 두 번째 항목인 안티테제는 첫째 항목인 테제를 부정함으로써 생겨나므로 안티테제는 테제에 의존적이다. 양극성의 경우는 내재한 이미지가 암시하듯 두 항목은 서로 대조를 이룰지언정 그 자체로 존재하여 모두 긍정명제가 된다. 두 항목의 어느 것도 다른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예이츠는 『비전』에서 헤겔이 “시소의 양 끝은 서로의 부정”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를 비난할 때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가 비록 블레이크를 좇아 이분법의 또 다른 견해, 즉 “대조를 이루는 것들은 실재하며 똑같이 참(眞)되다”는 견해를 취했기는 하지만 예이츠는 니이체의 이름을 말해도 역시 좋았을 것이다. (Foster 44)

갈등의 두 구성요인이 모두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참되다는 양극성의 입장을 취할 경우 갈등은 해소되어야 할 상태가 아닌, 그 자체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현상이 된다. 블레이크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between Heaven and Hell*)에서 이런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반대되는 것들이 없다면 진전도 없다. 끌림과 혐오, 이성과 힘, 사랑과 미움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Blake 105)

갈등의 해소는 오히려 삶에 유해하다고 보는 블레이크의 입장을 좇아 에이츠도 “갈등이 모든 생명을 창조한다(...the conflict creates all life)”고 주장하며 (*A Vision* 72), 갈등의 효용론을 펼친다.

모든 고귀한 것은 싸움의 결과이다; 큰 나라와 힘센 계층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싸움의 결과이고, 훌륭한 시와 철학은 보이지 않는 싸움, 내부의 마음의 분열의 결과이다. (*Essays and Introductions* 321)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이 갈등의 소산이라는 것이 에이츠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시인인 에이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의 대상인 시가 바로 갈등의 소산, 좀 더 정확히는 시인 내부의 갈등의 소산이라는 견해이다.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창작하게 만드는 이 갈등의 구성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시드넬(M. Sidne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에이츠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므로 (Sidnell 6)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의 산문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에이츠가 갈등을 주축으로 자신의 예술관을 표명한 마스크 이론이다.

II

시인 에이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함으로써 에이츠 시론의 핵심을 이루는 마스크 이론은 에이츠가 이미 이십대에 이 이론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주

는 『자서전들』(*Autobiographies*)의 여러 곳에서 그 편린을 찾아 볼 수 있으며, 1909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그의 일기는 마스크 이론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1917년에 발표된 『상냥하고 고요한 달을 위하여』(*Per Amica Silentia Lunae*)에서 가장 완결된 형태로 명쾌하게 제시된다. 예이츠는 이 산문이 발표된 1917년 5월에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을 자신의 시세계의 성격을 알리기 위해 쓴 “철학적인 소책자(a little philosophical book)”로 정의하며 『알파벳』(*An Alphabet*)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이 그에게서 차지하는 비중을 새삼 가늠케 하는 일이다.

저는 인쇄를 해서 60쪽 정도 되는 철학적인 소책자, 『알파벳』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영혼(*Anima Hominis*)”과 “세계령(*Anima Mundi*)”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시 작품을 지원하기 위한 산문입니다. (*The Letters* 624-25)

『상냥하고 고요한 달을 위하여』는 서시 “나는 너의 주(*Ego Dominus Tuus*)”로 시작되며 “인간의 영혼”과 “세계령”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이츠는 특히 첫 부분인 “인간의 영혼”에서 마스크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시 “나는 너의 주”는 바로 이 마스크 이론을 극화한 작품이다. 『비전』은 예이츠 자신이 『상냥하고 고요한 달을 위하여』에서 전개된 사상을 더욱 진전시켜 쓴 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블룸(Bloom)의 지적대로 (Bloom 184-85) 그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한 형태로 전개된 나머지 오히려 마스크 이론의 정립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의 이해를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다.

“인간의 영혼”을 중심으로 이상 언급된 저서를 살피며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에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그의 문학관을 살피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견 모호해 보이는 ‘마스크’란 용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며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이 단어의 의미와 이로 인한 편견 (예를 들면 ‘가면’이란 의미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도덕적인 느낌 등)을 모두 접어두고 마스크에 대한 예이츠 자신의 설명을 고찰함으로써 한 일상적인 단어가 시인에 의해 시어화(詩語化), 혹은 은유화되는 과정을 살피며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예이츠는 마스크를 종종 “이미지(Image),” “반자아(Anti-self),” 혹은 “대립적

인 자아(Antithetical Self)”라고 표현 하는데, 우선 마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비전』에서 예이츠 자신이 내린 “욕구의 대상(object of desire),” 혹은 “지선(至善)의 이상(idea of the good)”이라는 간편한 정의를(*A Vision* 83) 참고할 때 얻어질 수 있다. 이 짙은 정의가 제시하듯 “마스크”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표현해 주는 이상적인 이미지이다. 이 기본적인 정의에 마스크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해 덧붙여져야 할 사항은 『자서전들』에서 추출한 예이츠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고할 때 찾아질 수 있다.

실세계와 본래의 자아와는 항상 대조를 이루는 이미지 (*Autobiographies* 171)

본래의 모습과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자아 즉, 마스크
(*Autobiographies* 247)

나의 생활 속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현 상태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이미지
(*Autobiographies* 274)

우리의 욕구를 표현해주는 이상적인 이미지인 마스크는 우리의 삶을 조건 지움으로 우리 사고의 가장 빈번한 대상이 되는 두 요소, 즉 우리 자신이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현 상태와 반대되는 모습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 특성을 위에서 얻어진 마스크의 기본적인 정의와 종합하면 마스크란 “현재의 삶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취하는 우리 삶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지칭하는 예이츠의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예이츠적인 특성의 발현을 보게 된다. 예이츠는 우리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반드시 현재의 삶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취한다고 한 것이다. 이상적인 이미지란 현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대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의 이상적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갈등을 주축으로 삼는 예이츠적인 특이한 사고의 결과로 본스타인(Bornstein)도 셸리(Shelley)와의 대비를 통해 이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이츠도 결과적으로는 셸리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지만, 그 방법은 궁극적인 목표의 비전을 드러내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상을 향한 고투의 고귀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Bornstein 169)

필자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점을 마스크의 가장 큰 특성으로 보며 예이츠가 자신의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마스크란 용어를 쓴 중요한 이유가 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상은 현재의 삶의 모습과는 반드시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가 지니는 또 다른 흥미 있는 특성은 이 마스크의 출처, 혹은 집산지가 바로 우리 자신의 깊숙한 내면이라는 점이다. 예이츠는 사고의 대상이 자기 자신 이든, 국가를 위시한 세계이든, 그 대상의 현 상태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현상으로서의 우리 삶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이미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천착해온 비교(秘敎)의 영향인데 일찍이 1887년에 예이츠는 프레드릭 그렉(Frederick Gregg)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조지 엘리엇은 오직 인간의 의식세계만을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희미한 무의식의 세계, 본능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세계에는 (만약 다윈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옳다면) 미생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반면, 의식세계에는 기껏해야 90년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The Collected Letters* 8)

곧, 예이츠는 인간의 깊숙한 내면을 태고 이래로 축적해온 모든 지혜와 기억의 보고로 본 것이다. 이런 입장은 비교(秘敎)의 영향이긴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에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차원까지 있음을 주장한 융(Jung)과 공통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예이츠는 융을 접하지는 않았었다.) 예이츠는 후일 이 입장을 “세계령(Anima Mundi)”의 개념으로 발전시키는데 그는 우리의 깊숙한 내면을 구성하는 이 세계령 속에 태고 이래의 기억과 지혜가 이미지들의 형태로 들어있으므로 (*Autobiographies* 112) 우리의 의지와 이성을 억제할 때 깊은 내면에서 삶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Mythologies* 344). 따라서 현상으로서의 우리 삶의 이상적인 이미지인 마스크의 추구는 예이츠로서는 깊숙한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이와와 결합을 의미했다.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마스크의 특성인데, 필자는 예이츠의 마스크에 대한 정의가 이점을 도외시키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최종적으로 마스크를 “우리의 내면에서 얻어지는, 현재의

삶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취하는 삶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지칭하는 예이츠의 용어로 정의한다.

마스크의 개념이 확립되면 이를 토대로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을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은 마스크가 예이츠에게 지니는 의미와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마스크의 역할에 따라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이 세 측면, 곧 문학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측면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런 입장에서 마스크 이론을 “예이츠의 도덕적, 심미적, 철학적 관심의 결합 (a bringing together of his moral, aesthetic, and philosophic interests)”이라고 본 존 무어(John Moore)의 견해에 동의한다(Moore 8). 마스크 이론을 통해 예이츠의 문학관을 살펴보는 본고의 논의는 따라서 마스크 이론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상냥하고 고요한 달을 위하여』의 “인간의 영혼”을 중심으로 마스크 이론의 문학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을 해나가는 것으로 진행된다.

III

예이츠가 “인간의 영혼”에서 마스크 이론의 세 측면 중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문학적인 측면인데, 『상냥하고 고요한 달을 위하여』의 존재이유가 예이츠의 작품 세계의 근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예이츠는 먼저 자신과 동료시인들을 관찰하고 역대시인들의 삶을 고찰하여 시인들의 삶과 문학을 대비시키면서 문학의 정의를 내리게 된다. 그는 문학을 작가가 삶에서 추출한, 현재의 자신의 삶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취하는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 즉 작가의 삶에 대한 마스크의 구현이라고 정의한다. 문학을 삶의 마스크로 보는 것인데 예이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의를 느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혹한 비판을 가하는 그레고리 부인(Lady Gregory)이 누구도 비난이나 비판을 당하지 않는 작품세계를 창조했음과, 평온하고 우아한 세계를 제시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랜들(Landor)이 실은 대단히 걱정적인 사람이며, 가난하고 병약하고 무식한 키이츠(Keats)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계를 그렸다는 예를 제시한다. 이 예증들은, 그러나, 불륨의 지적대로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Bloom 181). 키이츠에 대한 예이

츠의 해석은 누구나 입을 모아 얘기하듯 대단히 빛나간 해석이며 (누가 키이츠를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시인들의 경우도 시인과 작품의 관계가 거의 기계적인 보상관계로 그려져 있을 뿐이다.

예이츠의 마스크 이론은 그가 단테(Dante)를 논하면서 비로소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다뤄지는데, 여기서 예이츠는 문학작품이란 시인이 삶을 결정짓는 조건인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느끼는 좌절과 고뇌의 결과로 창출한 시인의 삶의 마스크의 구현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예술이란 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삶과 이 마스크의 “비극적인 갈등(tragic war)” (*The Collected Poems* 181)의 산물임을 밝힌다.

예이츠는 단테가 자신의 삶의 마스크로 지순한 베아트리체(Beatrice)와 최상의 정의인 신의 정의를 제시한 것은 단순히 단테가 사랑을 느낀 베아트리체가 어린 나이에 죽고 그가 추방을 당했다는 현실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단테는 항상 자신의 과도한 정욕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었으므로 그 괴로움의 결과 지순한 여인을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로 제시한 것이며, 또한 자신 속에 내재하는 옹지 못한 분노로 인해 가장 이상적인 정의인 신의 정의를 마스크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단테는 세계와 자신으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찾아 이를 작품으로 구현했다고 분석함으로써, 예이츠는 문학작품이란 시인이 삶을 결정짓는 조건인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느끼는 좌절과 고뇌의 결과로 창출한 삶의 마스크의 구현임을 분명히 한다. 예이츠에게는 문학이 문학인 까닭은 문학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것에 있는 것이다. 마스크 이론을 통해 드러나는 예이츠의 이런 문학적 입장은 그가 당대의 주류를 이루던 사실주의 내지는 자연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시인임을 말해준다. 예이츠는 사실주의자는 역사가라고 생각했다(*Mythologies* 328).

예이츠의 단테론은 또한 그의 마스크 이론이 프로이트 류의 정신분석학적인 욕구충족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꿈은 일상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그 좌절감을 승화시키지 않은 채 (“without purifying discouragement”) (*Mythologies* 330) 그대로 분출된 것이라면, 예이츠의 마스크는 이 좌절감이 순화되고 승화된 결과 얻어지는 비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이츠는 심리적인 보상을 위한 마스크도 예술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말이지 어떤 작가들의 경우에는 작품이 대립적인 선(善)이기보다는 건강상의 혹은 상황의 어떤 사고에 대한 보상이다. (*Mythologies* 327)

건강이 악화된 싱(Syngé)이 본능적인 삶을 활기차게 구가하는 인물을 창조한 것이 그 예가 되는데, 에이츠의 관심은 이와 같은 보상적인 마스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테의 작품이 보여주는 고뇌와 좌절의 순화를 통해 얻어낸 현재의 삶과는 대조를 이루는 “대립적인 선(opposing virtue)”으로서의 마스크에 있는 것이다. 문학은 바로 이런 마스크를 구현한 것으로 작가의 삶의 마스크가 되는 것이다. 오펔 부인(F. N. Oppel)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심미적인 측면에서 마스크는 예술로서 완전함의 이미지요 본보기이다. 이 공식에서 예술의 대립항은 인생이다. (Oppel 214)

단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에이츠의 마스크 이론이 알려주는 그의 문학과관의 또 다른 측면은 문학작품의 근원에 관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은 갈등의 소산이라고 생각한 에이츠는 문학작품의 근원을 작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스크와 삶의 “비극적인 갈등(tragic war)”에서 찾았다. 작가 내부의 이 갈등이 예술창조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영혼”의 초고의 일부분이었지만 출판은 되지 않은 “시인과 여배우(The Poet and the Actress)”는 에이츠의 이와 같은 견해를 명확히 보여준다.

내가 추구하는 예술 역시 싸움인데 이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며 적대자 중의 하나는 세상에 알려진 형태를 지니지 않으며 인간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꿈의 투쟁이다. . . . 꿈과 현실이 눈에 보이는 전투대형 속에서 서로를 주시할 수 있도록 우화와 신화가 있어야만 한다. . . . 싸움이 클수록 예술은 훌륭해진다. (Baker 181 재인용)

그런데 이 인용문은 마스크와 삶의 갈등에 대한 에이츠의 또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에이츠는 마스크와 삶의 갈등은 작가 내부에서 예술창작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작품에 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영혼”에서 이어지는 단테론은 에이츠의 이런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약 30년 전에 나는 시메온 솔로몬(Simeon Solomon)의 산문으로 된 알레고리를 읽었다. 이 작품은 지금은 절판이 되어 구할 수 없는데 나는 이 작품 중에서 한 문장을 기억하거나 혹은 기억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것은 충족된 욕구의 ‘공허한 이미지’라는 표현이다. 모든 행복한 예술은 나에게 그 공허한 이미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작품의 모습이 작가로 하여금 작품을 창조하게 한 절망이나 결핍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예술을 비극적인 예술이라고 부른다. 키이츠는 우리에게 단지 그의 사치스러운 꿈만을 제공했다. 그러나 단테를 읽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의 갈등을 오래 피할 수가 없다. (*Mythologies* 329)

에이츠는 마스크와 삶의 갈등이 작품에 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문학을 두 종류로 나눈다. 그 하나가 키이츠의 경우처럼 마스크를 구현하기만 한 “행복한 예술(happy art)”이며 다른 하나는 작가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시켜 마스크를 찾아내게 만든 고뇌어린 삶의 상황이 마스크의 형상화 과정에 용해되어 작가 내부의 삶과 마스크의 충돌을 표출한 “비극적인 예술(tragic art)”이다. 에이츠는 시메온 솔로몬의 “공허한 이미지(hollow image)”와 같은 “행복한 예술”보다는 마스크와 삶의 갈등이 드러나는 “비극적인 예술”이 더 훌륭하다는 입장이다.

에이츠는 단테론에서 마스크를 통해 문학을 정의하고 그 근원을 밝힘에 이어 문학작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 기준은 에이츠의 사고의 특성을 새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에이츠의 기본적인 문학관을 보다 명확히 알려준다. 에이츠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모든 사물을 갈등구조로 파악하는데 그의 갈등구조는 두 구성요인을 모두 가치 있고 그 자체로 참되다고 보는 양극성(polarity)의 입장을 취한다. 에이츠가 문학에서 파악한 갈등구조는 삶과 마스크로 이뤄지는데 양극성의 입장에 서는 에이츠의 관점으로는 이 두 요소가 다 귀중한 것이다. 문학이 마스크의 구현이기는 하나 문학작품이 현재의 삶을 제시하지 않고 대조를 이루는 “대립적인 선(opposing virtue)”으로서의 마스크의 구현에만 그친다면 이는 갈등의 한 구성요인인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삶과 마스크라는 갈등의 두 구성요인이 모두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에이츠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이다. 불완전한 현재의 삶의 상황이 마스크의 형상 속에 용해된 “비극적 예술”을 보다 바람직한 예술로 제시하는 것은 삶과 마스크, 그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 둘이 다 존재하는 작품을 원하는 에이츠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에이츠의 문학작품에 대한 판단기준은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규명해 보아야 할 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이츠가 “비극적 예술”이라 명명한 문학

작품이 그 구성요소로서 불완전한 삶의 상황을 포함한다는 것 이외에 “행복한 예술”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점이다. 블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짤막한 해설을 제공한다.

비록 예이츠가 “인간의 영혼”에서 모든 행복한 예술은 솔로몬의 공허한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그가 이 말로써 의미하는 것은 비극적인 예술은 행복하면서도 예술가의 “결핍” 또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Bloom 181). “비극적인 예술”도 행복한 것이라는 해설인데, 이는 말을 바꾸면 예이츠에게는 모든 예술작품이 그러하다는 지적이다. 일견 예이츠 자신의 구분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블룸의 이 해설에 대해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점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예이츠의 근본적인 문학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이츠의 기본적인 문학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봐야 한다. 예이츠는 문학을 마스크의 구현으로 정의한 사람이다. 그런데 마스크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인이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창출해내는 현재의 삶과는 대조를 이루는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마스크의 창출과 이를 문학작품으로 구현하는 예술창조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이츠에게는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행복한 것이다. 이것은 예이츠가 문학의 구분을 위해 이용한 “비극적”이라는 명칭 때문에 간과되어서는 안 될 예이츠의 기본적인 문학관이다. 마스크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룬 “인간의 영혼”에서 이 문학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내가 과거의 어느 위대한 시인에 대해 생각을 하던지 간에, 만약 내가 그의 인생의 운곽을 안다면, 나는 그의 작품을 그의 운명 전체로부터의 도피요, 운명의 그물망에서의 맹목적인 투쟁으로 이해한다. (*Mythologies* 337)

예이츠는 현재의 삶과는 대조적인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문학은 작가의 운명으로부터의 도피요, 이를 벗어나기 위한 맹목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예이츠는 1909년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펼친다.

나는 모든 행복은 다른 자아의 마스크를 취하는 힘을 지니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즐겁거나 창조적인 삶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 — 한 순간에 창조되며 끊임없이 갱신되는 — 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무한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아이들의 장난 같은 장난을 하는 것에, 비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급히 도망칠 수도 있도록 기괴하거나 신성한 분장을 하는 것에 즐겁거나 창조적인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일종의 상상력에 의한 농신제이다. (*Memoirs* 191)

에이츠는 현재의 상태와는 대조를 이루는 이상적인 마스크의 구현을 순간적으로나마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상상력에 의한 농신제(imaginative saturnalia)”로 표현하는데 필자는 이 정의가 에이츠가 파악한 문학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준다고 본다. 비록 에이츠가 “인간의 영혼”에서 정립된 마스크론을 펼치면서 이 일기를 인용할 때 이 표현을 생략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삶에 대한 애정이 강해 마스크를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촉발시킨 삶의 현실을 용해시킬 것을 권장하는 에이츠지만, 문학은 그에게 본질적으로 현실의 고통을 순간적으로나마 벗어나 볼 수 있는 “상상력에 의한 농신제”로, 행복한 것이다.

IV

문학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는 대조를 이루는 마스크의 구현으로 보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으로 보는 에이츠의 문학관에 대해 시드넬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 에이츠는 … 결국 시의 소재로 여겨지는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제재와 시 사이의 강한 괴리감을 인정하는 소외의 시론을 취한 것이다. (Sidnell 98-99)

시드넬은 문학과 그 소재가 되는 삶의 괴리를 인정하는 에이츠의 시론을 “소외의 시론”이라고 칭하는데 오펔 부인(Mrs. Oppel)은 이 점에서 에이츠를 낭만주의의 전통 속에 있는 시인으로 평가한다(Oppel 193). 그런데 필자는 에이츠 문학관의 특성과 문학사에서의 그의 좌표를 지적한 이 두 가지 평에 한 가지 평가를 더 덧붙이고 싶다. 필자는 에이츠의 마스크를 주축으로 형성되는 문학관은 그의 시인으로서의 목표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 『수필들과 서론들』(*Essays and Introductions*)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드러나듯 에이츠의 삶과 문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과학과 기계론적인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이었고 에이츠의 전 생애에 걸친 목표는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물질중심적인 세계관과 세계상을,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문학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관과 그 표현인 문학을 정립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울산대)

인용문헌

- Baker, Carlos. *The Echoing Green: Romanticism, Modernism, and the Phenomena of Transference in Poet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Blake, William. *The Poems of William Blake*. Ed. W.H. Stevenson. London: Longman, 1971.
- Bloom, Harold. *Yea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Bornstein, George. *Yeats and Shell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Jeffares, A. Norman. *The Circus Animals: Essays on W. B. Yea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Foster Jr., J. B. *Heirs to Dionysus: A Nietzschean Current in Literary Moder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Lentricchia, Frank. *The Gaiety of Language: An Essay on the Radical Poetics of W. B. Yeats and Wallace Steve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Moore, John Rees. *Masks of Love and Death: Yeats as Dramati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 Murshid, K. S. "Yeats and the Saint's Mask." *Dacca University Studies*, 10: Pt.1 (June, 1961). 79-96.
- Oppel, Frances Nesbitt. *Mask and Tragedy: Yeats and Nietzsche 1902-10. Yeats's Poetry and Poetics*.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6.
- Snukal Robert. *High Talk: The philosophical Poetry of W. B. Yea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Unterecker, John. *A Reader's Guide to William Butler Yeat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 Yeats, William Butler. *Autobiographie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55.
- _____. *The Collected Letters of W. B. Yeats, VI. I 1865-1895*. Ed. John Kelly. Oxford: Clarendon Press, 1986.
- _____.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1950.

- _____. *Essays and Introduction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1.
- _____. *The Letters of W. B. Yeats*. Ed. Allan Wad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 _____. *Memoirs*. London: Papermac, 1988.
- _____. *Mythologies*. New York: Macmillan, 1959.
- _____. *A Vis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62.

Abstract

Yeats's View of Literature: Literature as Imaginative Saturnalia

Do-Kyung Lee

Yeats, seeing the world and consciousness as conflict, deliberately exploits conflict: he insists that all the great things of the world including poetry are the result of conflict. Then what are the two terms of the conflict which sets the writer to the work? Yeats's theory of the Mask answers to this question, and this answer ultimately leads to an understanding of Yeats's view of literature.

Yeats's theory of Mask is notoriously complex: based on his way of thinking, it is the cohesion of all his essential attitudes toward life and art. It is given its fullest statement in *Per Amica Silentia Lunae*, but *Autobiographies* and *A Vision* are also helpfu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of the Mask. The writer of this study has proposed to define the Mask to investigate the theory, so eventually to understand Yeats's view of literature, mainly referring to these three prose works.

The investigation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Mask' is a Yeatsian term for an Ideal image of life which is always opposite to the natural self or the natural world, lurking in the unconscious dark of the mind; that the theory of the Mask has three aspects—aesthetic, moral, and philosophical—according to the roles of the Mask. The aesthetic meaning of the theory demonstrates Yeats's argument on the nature, the source, and the touchstone, of a work of art: art is the embodiment of the writer's Mask of life, and his inner struggle between mask and life sets him to his creative work; the quality of a work depends upon the expression of this tragic war. The theory also makes clear his literary creed as non-naturalist. But all the more important, the theory of the Mask clarifies Yeats's most fundamental view of literature: literature as imaginative saturnalia through which one may happily forget reality.

■ Key words : conflict, Mask, happy art, tragic art, imaginative saturnalia (갈등, 마스크, 즐거운 예술, 비극적인 예술, 상상력에 의한 농신제)